

« 이 논문은 1981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 국 어 리듬 의 음 성 학 적 연 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이 현 복

< 내 용 >

- 1 머 리 말
- 2 발화와 말로막과 리듬
- 3 말로막의 리듬적 구조
- 4 말로막의 길이와 낱말과의 관계
- 5 리듬의 유형

1 머 리 말

어떤 언어이건, 소리말에는 그 말 특유의 리듬이 있다. 시계추의 왕복이나, 사람의 걸음 또는 댕박에서 규칙적인 리듬의 현상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말도, 비록 언어마다 성격은 다를지라도 각기 고유의 리듬 현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가령, 하나의 긴 발화를 보면, 끊김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토막으로 나뉘며, 하나의 토막은 그 자체가 특이한 리듬의 구조를 지니고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시계추나 댕박 또는 걸음걸이의 리듬은 잘 인식하게 되나, 언어에서 나타나는 말의 리듬은 잘 느끼지 못한다. 여기

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성싶다. 첫째로, 자기 모국어일 경우에는 이미 어려서부터 말의 리듬을 완벽하게 익혀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할 때나 남의 말을 들을 때에 리듬의 현상을 느끼지 못한다. 아니, 전문 음성학자가 아닌 한 완전히 속달되어 내재화한 리듬 현상을 느낄 필요 조차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소리말의 리듬은 시계추나 댕박과 같이 단순하여 인식하기 쉬운 형태가 아니고, 그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리듬을 파악하기가 그 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모국어에도 고유한 리듬이 있어서 자기 자신도 그러한 리듬 패턴을 일상 듣고 발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자기 모국어와 리듬 구조가 아주 다른 외국어를 듣거나 발음할 때에는 리듬의 장애를 겪는 가운데 두 언어간에 리듬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외국어에서 모국어에 없는 특이한 리듬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든지, 외국어의 생소한 리듬을 모방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 다든지, 또는 리듬 패턴을 잘 못 발음하면 의미상의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있다는 따위의 현상을 경험하는 순간에 리듬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물론 한 언어안에서도 방언간에 리듬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가령, 한국어 안에서도 표준말과 경상도 말이나 함경도 말 사이에는 일반적인 어휘적, 문법적, 음성음운적 차이와 아울러 리듬의 차이가 심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선 경상도나 함경도 방언 사용자가 표준말 사용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 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리듬이란 소리말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듬을 제쳐놓고 소리말을 논할 수 없으며, 리듬을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면 말의 유창한 흐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어생활에 커다란 오해나 장애마저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말의 리듬 현상은 일차적으로 음성언어학에서 분석 기술하여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어의 습득과 교육, 외국어 교육을 위한 모국어와의 대조 연구, 시 형식의 비교 연구에 필수적이며 표준말과 방언의 비교 연구에도 필요한 내용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선 우리나라 표준말로 되어 있는 서울말의 리듬의 형태와 구조를 음성학적으로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필자는 수년전에 한 두 편의 논문에서 우리말의 리듬을 다룬 일이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미진한 면을 더욱 보완하고 또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실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어의 리듬 현상을 좀 더 정밀하게 기술하려고 한다.

2 발화와 말호마과 리듬

리듬의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듬이 실현되는 소리말의 단위를 정해야 한다. 먼저, 앞뒤에 심이 있는 말의 단위를 "발화"라 한다. 이러한 발화의 길이는 경우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하나의 발화안에서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락, 즉 호마이 나타남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 같이 하나의 발화가 더욱 작은 단락으로 나뉠 때에, 그러한 단락을 "말호마"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므로 발화와 말호마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발화 → 말호막 1(+말호막 2 + 말호막 3 + 말호막 n)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발화의 최소 형태는 하나의 말호막으로 구성되며, 긴 것은 둘, 셋 이상으로 늘어나, 이론상 무한한 수의 말호막으로 이루어진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발화안의 말호막의 수가 무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보통 문장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호막의 수도, 실제로는 많아야 10여 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이제 말호막과 발화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 해 #
- 2) # 해와 + 달 #
- 3) # 봄 + 여름 + 가을 #
- 4) # 아직 잘 + 모르지만 + 왜 #
- 5) # 그림 + 별 + 언제 + 어떻게 #
- 6) # 난 + 정말 + 뭐가 뭔지 + 모르겠어요 #
- 7) # 당신이 + 빨리가서 + 그 열 + 데리고 + 와요 #
- 8) # 우린 언제나 + 대한민국의 + 국민임을 + 깨닫고 + 즐기치게 + 됩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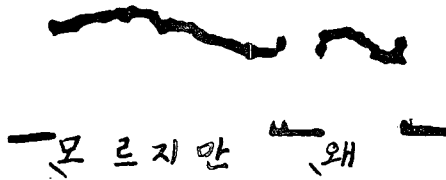
위의 예문에서 # 는 심 즉 휴지를 나타내며 + 는 말호막간의 경계를 표시한다. 여기서 1)은 하나의 말호막이 하나의 발화를 이루는 예로서 발화와 말호막의 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나머지는 한 발화안의 말호막 수가 점점 늘어나서, 8)에서는 6개의 말호막을 포함하는 발화의 예를 보이고 있다. 발화의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 는 완전한 심을 표시하며, + 는 심이 없거나, 있어도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어서 아주 짧은 심을 표시한다. 그리고 말호막의 끝음절은 강세가 있든 없든, 그 앞의 무강세 음절보다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오

림 음조나 내림 음조 따위의 억양이 얹히어 나타날 때에도 오름이
나 내림의 폭이 # 의 앞에서 보다 좁은 것이 보통이다. 가령 위
예의 4)를 4가) # 모르지만 + 왜 #

4나) # 모르지 + 왜 #

로 발음했을 때에, 4가)에서는 무강세 음절 /르지만/ 중에서 그 말
호막의 끝 음절인 /만/ 이 앞의 음절 /지/보다 길고, 4나)에서는 끝
음절 /지/ 가 역시 그 앞의 /르/보다 길게 실현됨을 다음의 캐링고
그라프(Laryngograph)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가)와
4나)에서 각 발화안의 두 말호막이 모두 내림음조로 발음되었는 예도
+ 앞에 오는 /만/ 과 /지/에서 끝나는 내림 음조는 # 앞에 오는 음
절 /왜/ 에서 실현되는 내림 음조보다 내림의 폭이 좁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말호막의 끝음절이 길어지는 현상과 아울러 오르 내림
의 폭이 좁은 것은 말호막의 경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음성적 특징이
되며 동시에 후속하는 경계 표시가 # 가 아니고 + 라는 증거가 된
다.

4 가)



4 나)



한국어의 발화는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말호막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말호막은 한국어 소리의 중요한 기본 단위인바, 팔자는 이를 바로 한국어 리듬의 단위, 다시 말하면, 한국어의 리듬을 실현시키는 기본 틀이라고 정의한다. 즉, 말호막 안에서 여러가지 리듬의 유형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호막을 한국어 리듬의 기본 단위로 정의한다는 것은, 곧 리듬의 단위를 음절보다 높은 차원에서 설정한다는 뜻이다. 물론, 말호막의 최소 형태가 한 음절로도 이루어지긴 하나, 보통은 두 음절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한 음절 말호막은 리듬의 특수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리듬 단위로서의 말호막의 길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음절과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호막 \geq 음절

즉, 말호막은 음절보다 길이가 같거나 길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의 공식은 한국어의 리듬이 흔히 말하는 소위, 음절중심의 리듬(Syllable-timed rhythm)이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음절중심의 리듬이란, 음절을 리듬의 기본 단위로 삼고, 각 음절은 동일한 길이를 갖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분명히 해 둘 것은, 리듬의 특성은 방언마다 다를 수 있으며, 현재 필자가 여기서 다루는 방언은 서울 지역의 표준말이라는 사실이다.

3 말호막의 리듬적 구조

위에 말한 한국어 리듬 단위로서의 말호막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말호막은 하나의 강세 음절이 홀로 또는 앞뒤

에 하나나 그 이상의 무강세 음절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단위.

이며 앞뒤에는 임시 휴지 + 나 종결 휴지 #가 온다."

위의 말호막 정의에서 말호막의 최소 형식은 강세를 받는 음절 하나로 구성되며, 그보다 긴 것은 강세 음절 앞뒤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음절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말호막의 구조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underline{\text{말 호 막}} \rightarrow \underline{(w^1w^2w^3\dots w^n) 'S (w^1w^2w^3\dots w^n)}$$

('S=강세음절, w=약음절)

그리고, 강세 음절의 전후에 오는 약음절의 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없으나, 한 음절에서 서너 음절이 흔하다. 이제, 앞에서 보기로 소개한 말호막의 구조를 공식에 따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1a) # '해 #
- 2b) # '해와 + '달 #
- 3c) # '봄 + '여름 + '가을 #
- 4d) # '아'직잘 + '모르지만 + '왜 #
- 5e) # 그 '럼 + '덜 + '언제 + 어'떻게 #
- 6f) # '난 + '정말 + '뭐가된지 + '모르겠어요 #
- 7g) # '당신이 + '빨리가서 + 그 '엘 + 데'리고 + '와요 #
- 8h) # 우리 '년제나+대'한민국의+'국민임을+깨'닫고+'즐기차게 +'떠자 #

위의 표기에서 강세 음절은 해당 음절 앞에 (') 을 두어 표시하였고 약음절은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제시한 리듬 구조는 고정 불변의 패턴임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현대 표준말에서 드러나는 대표

적인 대화체의 리듬이라고 본다. 여기서, /어'떻게/는 /'어떻게/로 날 수도 있으며(5e), /'뭐가뭔지/는 /뭐가'뭔지/로 날 수도 있음을 밝혀 둔다(6f). 또한 말호막안에 하나 이상의 날말이 들어 있을 때는, 이를 모두 하나의 날말과 같이 붙여 적음을 주의하라. 날말과 말호막과의 관계는 후에 다시 기술한다. 그리고, 8_h)에서 /우'리'년제/는 소리말과 글말의 음절 경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리말 즉 실제 발음의 음절 경계를 표시한 예이다.

위에서 말호막의 구조를 기술하였거니와, 말호막을 이루는 음절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 결과로 어떠한 리듬감 또는 리듬 패턴을 만들어 내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말호막안의 음절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1) 말호막의 핵을 이루는 강세 음절은 앞뒤에 있는 약음절보다 세기가 커서 튕들릴 뿐만 아니라, 길어도 긴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음절의 길이란 모음뿐만이 아니라, 모음과 자음이 섞여 내는 음절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2) 강세 음절의 앞이나 뒤에 오는 약음절은 강세 음절보다 약하고 짧으나, 다만 말호막의 끝음절은 길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며 때로는 강세 음절보다 길게 날 수도 있다. 7g)의 /그'엘/과 같이 말호막의 끝 음절이 강세를 받을 때에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길게 난다.

3) 강세 음절과 약음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덩어리의 리듬군을 이루어 내는데, 구체적인 리듬의 특성은 강세 음절과 약음절간의 상대적인 위치와 약음절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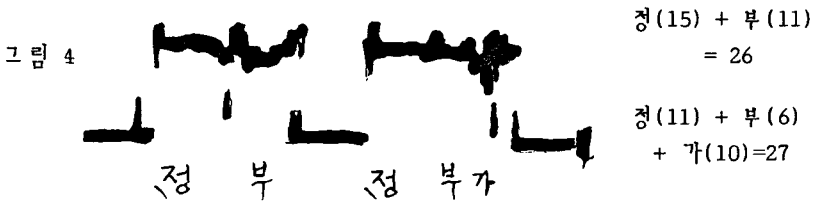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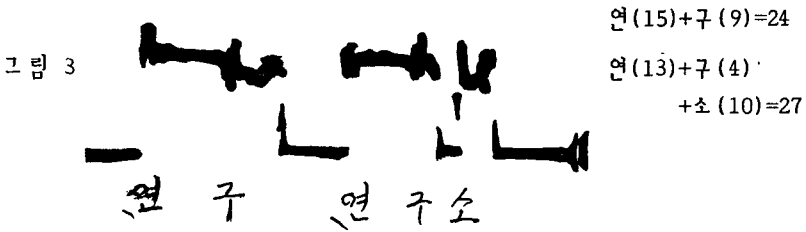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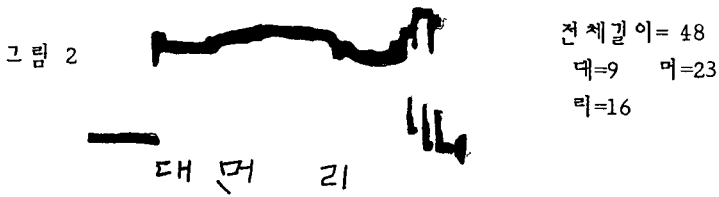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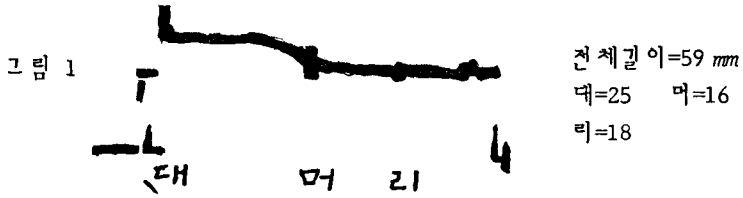
4) 말호막의 길이는 말호막을 이루는 음절 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이나 그 길이가 음절수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음절 수가 많은 말로막은 음절 수가 적은 말로막보다 길이가 기나, 음절수에 비례하여 길어 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길어 진다.

5) 위의 4)에서 제시한 현상의 필연적인 결과로, 말로막안의 음절 수가 많을수록 각 음절이 차지하는 시간은 짧아 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영어에서와 같이 심하지는 않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의 리듬은, 비록 정도는 약하다고 할지라도, 영어 따위의 언어에 나타나는, 이른바 "강세중심의 리듬"(Stress-timed rhythm)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태링고그라프에 의한 실험자료. 지금까지 위에서 말로막의 리듬적 구조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였다. 다음에 이를 뒷받침할 태링고그라프의 실험자료를 소개한다. 이 실험자료는 1982년 9월 하순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음성 실험실에서 필자가 직접 피실험자가 되어 실시한 실험 결과이다. 여기에 제시된 그림은 태링고그라프의 분석 결과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오셀로스코프에서 사진찍은 후, 이 사진을 토대로 뜬 것이다. 태링고그라프는 원래, 시간축에 따른 소리의 높낮이를 분석하는 기기이나, 그 밖에도 유성과 무성의 차이와 아울러 음절의 경계도 어느 정도까지는 밝혀 낼 수 있으므로 이같은 리듬의 연구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아랫쪽의 선은 성대의 진동 여부를 나타내는 데, 직선이 보이는 부분은 무성을, 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유성을 표시한다.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선은 목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데, 물론 위치가 높을 수록 높은 목소리를 뜻한다. 음절의 경계는 파찰음, 마찰음, 튀김소리 등으로 잘 나타나고, 유성음인

경우에는 음절에 따른 높낮이의 차이가 음절을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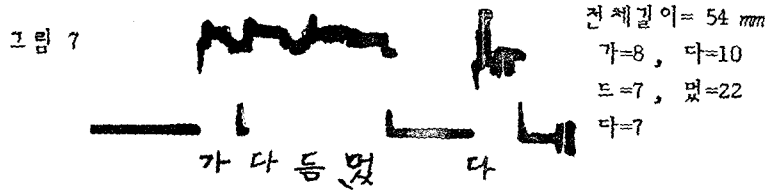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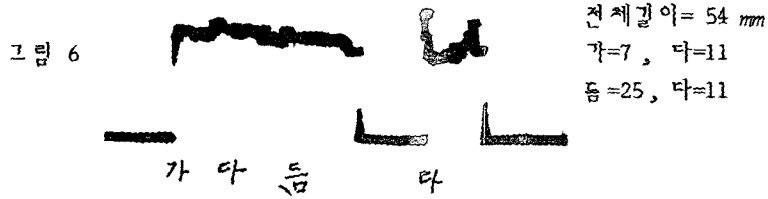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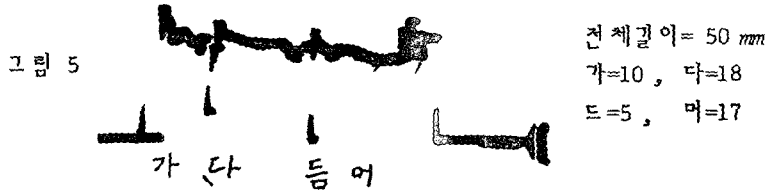


그림 1은 세 음절로 된 /'대머리/가 첫째 음절에 강세를 받고 발음되는 예인데, 음절의 길이를 표시한 오른쪽의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강세 음절 /'대/는 다음 음절 /머/에 비해 길이가 25:16으로 훨씬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최근 청소년층이나 방언사용자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비표준적인 발음을 모방하여 둘째 음절에 강세를 두고 발음한 예인데, /대/와 /머/의 길이 비율이 9:23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그림 1과 2를 비교해 볼 때에, 말호막안에서 강세를 받는 음절은 그렇지 않은 음절보다 길게 남을 확립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과 2는 다른 그림보다 약 두 배의 빠른 속도로 오실로스코프를 조정하여 얻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시간을 두 배로 확장한 효과를 내며, 각 음절이 차지하는 시간도 그만큼 확대되어 나타나므로 측정하기가 용이하다.

그림 3과 4는 강세 위치는 같되 2음절과 3음절로 발음될 때의 말호막의 전체적인 길이와 각 음절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하여 주는 예이다. 우선, 강세를 받는 /'연/ 과 /'정/은 어느 경우에도, 후속 음절보다 길되, 2음절의 말호막에서보다 3음절의 경우에 다소 짧아지는 현상을 보여 준다. 또한, 강세 음절의 뒤에 오는 /구/ 와 /부/ 가 말호막의 끝 음절로 날 때는 비교적 길게 나나, /'연구소/, /'정부가/ 에서와 같이 후속하는 음절이 있을 때에는 단축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때에 후속하는 음절 /소/ 와 /가/ 는 길게 난다. 그리고 /'연구/ 와 /'연구소/ 의 길이 비율이 24 : 27 이고, /'정부/ 와 /'정부가/ 의 길이 비율이 26 : 27 로서, 한 음절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길이의 증가 비율이 극히 낮으며 동시에 말호막안의 음절 길이에 변화(단축)가 일어났다는 것은, 한국어의 리듬이 음절중심이 아니라는 증거로 본다. 다시 말하면, 말호막 전체의 길이는 음절수에 정비례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림 5 6 7 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서서는 특히, 말호막의 강세 위치가 뒤로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강세가 이동하는 현상은 뒤에서 다시 논하므로, 여기서서는 다만

강세를 받을 때에 길게 나던 음절이 강세를 받지 않는 즉시 단축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4 말호막과 낱말의 관계

말호막은 낱말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이들을 별개의 단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가령 앞에서 든 예중에서 4)의 /아직잘/, 7)의 /빨티가서/, 8)의 /우린언제나/는 각각 두 개의 낱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니넨왜/ 같은 말호막은 세 개의 낱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아 + 냐/, /어 + 디/, /몰 + 락/ 같은 경우는 한 낱말이 두 개의 말호막을 구성하는 예이다. 따라서 소리말에서 리듬 단위의 기능을 갖는 말호막은 문법적 단위인 낱말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낱말은 문법적인 분석의 결과로 얻는 단위이므로 길이와 형태가 항상 일정하나 말호막은 변화가 심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말호막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분명한 요인은 말의 속도 즉, 템포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른 말씨에서는 여러개의 낱말이 한 말호막속에 연결되어 나타나므로 결국, 말호막 전체의 길이도 길어지는 반면, 속도가 느린 말씨에서는 낱말의 수도 적고, 결과적으로 말호막 전체의 길이도 짧아지기 마련이다. 또한, 말의 속도는 발화안의 말호막의 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령, 느린 말씨에서는 숨이 많으므로 단락이 늘어 나고 단락 즉, 말호막의 길이도 짧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아니 너 왜 안 갔어?" 와 같은 다섯개의 낱말로 구

성된 말은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호막의 수와 길이를 달리하여 발음될 수 있다 :

가) # 아니 + 너 + 왜 + 안갔어 # (말호막 4 개)

나) # 아니너 + 왜 + 안갔어 # (말호막 3 개)

다) # 아니너 + 왜안갔어 # (말호막 2 개)

라) # 아니너왜안갔어 # (말호막 1 개)

말호막의 길이에 따라 말을 듣는 이에게 주는 태도와 인상도 다르다. 즉, 말호막의 길이가 짧을 수록 또박 또박하고 분명하며 침착한 인상을 주는 반면, 말호막의 길이가 길면 불분명하고 침착하지 못한 감을 전달한다.

5 리듬의 유형

지금까지 기술한 말호막안에서 실현되는 한국어의 리듬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기본형= S


나) 머리형= www... S

다) 꼬리형= S www...


라) 복합형= www... S www...

기본형은 강세 음절이 단독으로 나는 경우이고, 머리형은 강세 음절 앞에 하나 이상의 약음절이 오는 유형이며, 꼬리형은 강세 음절 다음에 하나 이상의 약음절이 오는 유형, 그리고 복합형은 강세 음절이 앞뒤에 하나 이상의 약음절을 거느리는 유형으로서, 가장 복잡한 리듬


유형이다. 물론, 여기서 강세 음절은 동시에 길며, 끝음절을 제외한 약음절은 짧게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의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기본형 = 


'알, '달, '굴, '설, '든, '굴, '가, '자

나) 머리형 = 

그'택, 그'림, 바'람, 아'동, 사'랑, 시'간
아니'왜, 가지'마, 어서'와, 누구'요, 우린'언제나
그럭지'마, 부산에'가, 어디가'니, 이제그만'뒤

다) 꼬리형 = 

'오후, '연구, '전기, '선수, '가면, '교육, '소장
'오후에, '연구소, '전기가, '선수권, '가면극, '교육자
'오후에도, '연구소에, '이자마저, '먹지마라, '조심해서
'연구소에도, '먹지않아도, '변덕스러워, '이자마저도

라) 복합형 = 

이'점도, 기'본이, 자'동차, 분'동산, 도'망자
아니'왜요, 가지'마라, 누구'십니까, 기계'연구소
부산에'갑디다, 이력지도'못하고요, 아무'래도'좋다니까요

말로 막 안 의 강 세 위치. 지금까지 말로막의 구조와 리듬의 유형을 기술하면서 리듬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강세의 위치 즉, 강세 음절이 어디 놓이느냐에 따라 결정됨을 보았다. 말로막안에서 강세 음절이 어디에 오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어의 리듬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말로막안에서 강세 위치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가) 한 음절로 된 말로막은 바로 그 음절에 강세가 놓인다.
 나) 다음절 낱말 하나로 구성된 말로막에서는 음운론적인 모음의 장단과 음절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긴 모음을 지닌 음절은 강세를 갖는다. 보기) '연구 '오후 '사무소.
 그러나 어느 음절에도 긴모음이 없는 경우에는 음절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된다.

가) (C)V + (C)V(C) 이면 강세가 두 짝 음절에 온다.

보기) 이'마 시'간 사'당 지'점

나) (C)VC + CV(C) 이면 첫 음절에 온다.

보기) '성남시 '전주 '임자 '약주

다) 말로막이 하나 이상의 낱말로 이루어 질 때는 원칙적으로 의미의 비중이 큰 낱말에 강세가 오되, 위의 나)항의 원칙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 보기) 우유'한잔 부산'간다 아주'좋아 등. 여기서 의미의 비중이 달라지면, 우'유한잔, 부'산간다, '아주좋아 로 날 수 있다. 그리고 복합어의 리듬 유형은 다른 기회에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라) 강세의 위치는 억양으로 들어나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도 지배를 받는다. 보통 친근하고 감정의 관여도가 깊은 경우에는 강세가 말로막의 후방으로 가고, 이에 비해 엄숙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전방으로 전진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감시다" "여보" 같은 말을 /'감시다/ /'여보/

로 발음할 때와 리듬 패턴을 바꾸어 /갑시'다/, /여'보/로 낼 때에 이러한 차이를 음미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말호막의 리듬 유형은 세대의 차이나 방언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앞의 그림 2)에서 보인 /대'머리/가 이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모두 표준말의 리듬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 참 고 서 목 >

- 김 완진.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제11집,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아문화연구소, 1972.
- 이 송녕. "현대 서울말의 *Accent* 의 고찰", 국어학논고, 1960.
- 이 현복.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 문리대학보 제19호 합병호 (통권 28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1973.
-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권 2호, 1974.
- "국어의 말호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 제154호, 1974.
- 정 인섭.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 악센트다", 중앙대학교논문집 제10호 1965.
- 최 현배. 우리 말 분, 정음사, 1961.
- 허 용. 국 어 음 운 학, 정음사, 1970.
- 황 희영. 운 른 연 구, 서울, 1969.
- Abercrombie D.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onetics*, London, 1965
- Cho Seung-bog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Uppsala, 1967.
- Crystal D. *Prosodic Systems and Intonation in English*, 1969.
- Jones D.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Cambridge, 1947.
- Lee H.B. *A Study of Korean Intonation*, M.A. thesis, London, 1965.
- "Duration of Korean Vowels", *Le Maître Phonétique* No. 129, London, 1968.
- Ramstedt G.J. *A Korean Grammar*, Helsinki, 1939.

< 요약 >

음악에서뿐 아니라, 언어에도 리듬이 있고 그 유형은 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한 언어의 방언간에도 리듬에 차이가 난다. 가령 표준말과 경상도 말은 낱말의 소리에서뿐 아니라, 리듬에서도 큰 차이를 들어 낸다. 이 글에서 필자는 표준말의 리듬 구조를 분석 기술한다. 한국어 표준말씨의 리듬은 "말호막"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 하나의 말호막은 하나의 강세 음절과 전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약음절로 이루어 지는데, 강세 음절은 강하고 길게 발음되고 약음절은 말호막의 끝에 오는 음절을 제외하고는 짧고 약하게 난다. 강세 음절을 리듬 단위의 핵이라 하고 핵의 앞에 오는 약음절을 머리, 핵의 뒤에 오는 약음절을 꼬리라고 이름하면, 한국어 리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말 호 막 → (머리+) 핵 (+꼬리)

또한 한국어의 리듬은 일부에서 말하듯이 음절(시간)중심이 아니고, 강세(시간)중심의 리듬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위의 공식은 설명하고 있다.

< A b s t r a c t >

This paper describes the rhythmic structure of the Korean standard speech of Seoul in terms of what the writer calls "Speech Segment" as the basic unit of the rhythm. The speech segment consists of a "Nucleus" (a stressed syllable) with or without one or more weak syllable(s). The nucleus is always long and the weak syllables are short except the last syllable of the speech rhythm, which may be realized nearly as long as the nuclear syllable.

< H.B. LEE, Prof. of Phonetics and Linguistics,
Dep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